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바젤III와 솔벤시III의 상충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

- 유럽의 은행감독방안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자산 보유를 권장하고 있으나 보험감독방안은 장기 채권 보유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채권발행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전망이다.
- 2019년 시행 예정인 바젤III는 다른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여 은행의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은행의 자금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.
 - 맥켄지는 은행이 바젤III에 따를 경우 향후 8년 동안 2조3천억 유로의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러한 규모는 현재 은행 자본의 절반에 해당함.
 -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거나 예금 수신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은행은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.
 - 작년 한해 은행은 8천9백30억 달러 규모의 채권(5년 만기 이상)을 발행했으며 보험회사는 은행 채권의 60%를 매입하여 최대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함.
- 그러나 2013년 시행 예정인 솔벤시III는 장기 채권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준비금도 그에 상응해서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은행 장기채권 보유 동기는 감소할 전망이다.
 - 보험회사는 5년 만기 채권에 대해 채권가치의 8.2%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10년 만기 채권은 수익률이 단지 200bp 더 클 뿐이지만 16.5%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함.
- 보험회사는 자산선택 측면에서 준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기 채권을 보유하고 금리스왑을 이용해서 자산부채 만기 매칭을 해결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투자 수익률을 저하시켜 결국 소비자의 보험금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임.
 - 보험회사는 30년 만기의 채권을 보유하는 대신 3~5년 만기의 단기 채권을 보유하고 만기를 헤지하기 위해 금리스왑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.
 - 보험회사의 무위험 자산 보유 동기가 높아져 국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지급받게 될 만기 연금액은 15% 감소할 전망이다.

(Bloomberg 3/28)